

# 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서설(書設)

채집(蔡沈)의 『서경집전(書經集傳)』 「우서(虞書)의 서문에 이르기를, “요전(堯典)은 우(虞) 나라 역사가 지은 것이므로 「우서(虞書)라 하고, 「순전(舜典) 이 하는 하(夏) 나라 역사가 지은 것이므로 「하서(夏書)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역사를 편찬하는 방법은 모두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책에 각기 앞선 시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책이 비록 후세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책에 쓰여진 사건들은 앞선 시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고(班固)는 후한 시대에 살면서 전한의 역사를 편찬하여 그 책의 이름을 『전한서(前漢書)』라 하였고, 범조우(范祖禹)는 송대(宋代)에 살면서 당(唐)의 역사를 편찬하여 그 책을 『당감(唐鑑)』이라고 한 등의 종류가 모두 이러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요전>은 우 나라 역사가에 의하여 지어졌지만 『당서(唐書)』라 불러야 하고, <순전>이라는 하 나라 역사가 지은 것이지만 『우서(虞書)』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우모(禹謨)> 한 편은 예컨대 『전한서』의 「고조기(高祖紀)의 예와 같이 『하서』의 맨 앞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춘추전』에서도 그대로 『하서』라고 한 곳이 또한 많다.

그러나 <우모>에 기록된 내용은 우가 임금의 지위에 오른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고요(皋陶)와 익(益)과 더불어 순 앞에서 계책을 진술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순의 정오에서 임금이 신하간에 주고받은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치일 뿐이니, 어찌 『하서』라고 하겠는가?

또 하물며 옛날 죽간(竹簡)은 한꺼번에 많이 묶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하여 <우모>와 <고요모>와 <익직> 3편으로 만들었으니, <고요모>와 <익직>은

더욱 『하서』가 될 수 없다. 또 <우모>를 삼모(三謨)의 맨 아래로 내려서 『하서』의 첫머리로 삼을 수도 없으니, 그렇게 되면 <고요모>가 <요전>과 <순전> 다음에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자는 위로는 <요전>을 『당서』라 하지 않고, 아래로는 <우모>를 『하서』라 하지 않았다. 총괄적으로 『우서』라 단정지은 것은 요·순·우 세 분 상인이 도(道)를 주고받아 서로 전한 것이지, 후세의 혁명(革命)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는 요에 해당시키고, 아래로는 우에 해당시켰다.

<우공(禹貢)>은 요 임금 때 지어졌으며 또한 우가 임금의 지위에 오른 후의 일이 아닌데도 『하서』가 된 것은, <우공>편 전체가 오로지 우가 물을 다스려 공을 이룬 일을 기록하였고, 고요와 익직 등 여러 현인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가 홀로 한 일이며, 그가 천하를 갖게 된 것도 이 공 때문이어서 『하서』의 맨 첫머리가 된 것이다.

앞에서는 <우모>로 <요전>과 <순전>을 이었고, 뒤에서는 <우공>으로 『하서』의 첫머리로 삼았으니, 모두 우가 요·순을 이어서 천하를 소유한 것을 밝힌 것이다.

요·순을 ‘대(大)’로 부르지 않고 오직 우를 ‘대(大)’로 부른 것은 어째서인가? 요·순은 하늘과 같아서 비교할 상대가 없다.

모든 만물은 상대가 있고 그런 후에 소(小) 대(大)가 있다. 우를 ‘대’라 부른 것은 고요·익직과 구별하여 우가 순으로부터 천하를 받았음을 밝힌 것이다.

하물며 이 부분은 하나라 역사가 쓴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대’라고 부름으로써 높였을 뿐이다.

『서경』은 요·순 두 제왕과 우·탕·문왕 세 임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다. 그 마음을 구하면 하나로 ‘홍(欽)’일 뿐이다. 마음은 스스로 ‘전체(全體)’와 ‘내용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大用)’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서경』에도 ‘전체’와 ‘재용’이 있으니, ‘홍(欽)’이 그 전체요, ‘중(中)’이 그 내용이다. 요·순의 선양(禪讓)과 탕·무의 정벌(征伐)은 어느 것인들 ‘중(中)’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인들 ‘홍(欽)’의 발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서경』 전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중월(四仲月)에 천문 관측(測候)을 행한다. 그 사중월 중 봄과 가을에는 먼저 빈전(賓奠)한 뒤에 평질(平秩)할 것을 말하였는데, 이는 천도(天道)를 관찰하여 인사(人事)를 닦는 것이다.

여름에는 먼저 평질(平秩)을 하고 그 뒤에 경지(敬致)할 것을 말하였는데, 이는 인사(人事)를 닦아 천도(天道)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와 여름은 서로 바꾸어 말한 셈이다.

그리고 겨울에 태양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태양이 운행하여 북쪽에 이르러 땅속(地中)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또한 봄에는 아침으로, 여름에는 한낮으로, 가을에는 저녁으로, 겨울에는 밤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어두운 유도(幽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중성(中星)뿐이다. <요전>에 “동지일제허, 훈종모(冬至日在虛, 昏中星: 동짓날에 태양은 허수에 위치하고, 이날 저녁 무렵 남중하는 별은 묘수이다)”라고 하였다. 채집(蔡沈)의 『집전(集傳)』에 “이 때(동짓날) 태양은 두수(斗宿)에 있고, 저녁 무렵의 중성은 벽수(壁宿)이다. 그 중성이 <요전>과 서로 다른 것은 천도(天道)가 늘 고르게 운행하는데 비해 일도(日道)는 안으로 돌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늘[天]은 점점 차이가 나서 서쪽으로 가고, 해[歲]는 점점 차이가 나서 동쪽으로 간다. 이른바 세차(歲差)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특기고 (30회)

#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지난 호의 “명종실록”기사를 이어, “권벌이 이날 새벽 반대(寇寇)를 하고 바깥마루에 나와 예결하려고 수레 준비를 독촉하니 아내와 자식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권벌이 사실대로 말하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극진하게 간했으나 듣지 않았으며, 출발하려고 할 때에 딸이 옷을 붙들고 통곡했으나 소매를 뿌리치고 갔다. 그의 계사(啓辭)에 ‘대비는 일개 부인이며 주상은 육척의 어린 아이다(大妃一婦人, 主上六尺之兒). 선왕조의 대신을 유배하는데 그 죄가 불분명하니 하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윤임이 만약 두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하여 일시(入侍)한 5~6일 기간에 하지 않고 천위(天位)가 이미 결정된 뒤에 감히 다른 계책을 내었겠는가.’ 등의 말이 있었다. 이때 이언적이 원상(院相)으로서 정원에 있다가 계사를 가져다 보고는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시기를 생각하지 않으시오. 윤임은 구제할 수가 없시오. 도모는 되지 않고 해만 있을 뿐이오.’라고 하면서 붓을 들어 지워버렸다. 그러나 권벌은 무릎을 두 팔로 안고 벽에 기대어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였는데, 그의 뜻은 ‘만약 윤임이 무죄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뢰어서 무슨 도모가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이의(李宜)의 무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언적과 권벌은 다 큰 화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 당시 유관과 유인숙을 유배하고 그들에게 난역(亂逆)의 죄명을 더하려 하니 사람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감히 구제하지 못했는데 권벌만은 이에 맞서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힘껏 진달하였다. 충성스러운 격

정이 말에 나타나고 의기(義氣)가 얼굴색에 드러나 비록 간신들이 죽 늘어서 으르렁거리며 눈을 흘기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늠름한 기상이 추상같았으니 절의를 굳게 지키는 대장부라고 이를 만들었다. 김안국(金安國)이 늘 절의를 위해 죽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일찍이 ‘권벌은 직박하고 충직하니 바로 나의 어린 후사(後嗣)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에 이르러 과연 그 말이 들어맞았다.”고 당시 충재 선생은 회재 이언적과 같은 이상(貳相:장상)과 원상으로서 사신과 모재(慕齋) 정확한 ‘역사적인 인물평가(史評)’라 하였다.

그러나 훗날(10년 후인 명종 10년, 1555년) 이황(李滉, 호는 退溪, 1501-1570)은 충재 선생의 처음 계문(啓文)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소문을 올린 조식(曹植, 호는 南冥, 1501-1572)의 ‘율묘사직소(乙卯驛職疏)’(일명, 단성현감사직소(丹城縣監職疏)에서, 대비문정왕후와 명종을 지칭한 언사(言辭)·모후는 깊은 궁궐의 일개 파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유출하여 단지 선왕의 유업을 이은 한 고아일 뿐; 慈殿慈淵, 不過深宮之一寡婦, 殿下幼冲, 只是先王之一孤嗣)를 사용하여 명종이 크게 노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황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남명(조식)이 비록 이학(理學)으로서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기사(奇士)라서 논의와 식견(識見)이 매양 새롭고 기이하다. 고상(高尚)하고 세상이 놀랄 일을 하는 것은 어찌 도리(道理)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퇴계선생언행록(退溪先生言行錄) 권5, 『논불론(論物)』라고 은근히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종이 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좌의정 상진(尙讜)이 이제신(李濟臣)을 시켜 중국 송나라 역사책인 ‘송사(宋史)’의 ‘영종본기(英宗本紀)’에서 구양수(歐陽修)가 말한 것과 같은 조식의 말을 빼내어 놓고 변명하기를, “조식이 옛사람이 임금에게 고한 말을 인용하여 국가의 위태로운 형세를

지극하게 말한 것이지 거만한 일이 아님니다”하였다. 이에 명종도 조식을 마침내 죄주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이언적과 이황의 문헌에 대한 전고(典故)나 경사(經史)의 박학함이 사실상 충재 선생과 상진이나 조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황이 이학의 종지(宗旨)인 ‘수기치인(修己治人)’ 가운데서 정주학의 이기심성(理氣心性)과 거경공리(居敬窮理)의 ‘수기’를 자주 논하던데, 뛰어난 경세론(經世論)과 군국기무(軍國機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행적이 없는 것은 앞서 거론한 인물들과 비교하여 논할 바가 있을 듯하고, 성리학자로의 면모와 아울러 그의 학문적 깊이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점이 있다 하겠다.

또한 훗날 이 때의 일에 대하여 이이(李珣, 호는 栗谷, 1536-1584)가 충재 선생과 회재 이언적의 인물됨 비교하여 논한 가운데 다음의 구절이 있다. 즉, “사람을 평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절조를 본 후 여의 그 세세한 면(공적)을 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충재와 회재를 놓고 볼 때에 평소의 행동은 권공이 이공보다 못하다 할 지 몰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 절조를 지키는 점은 이공이 권공보다 낫다고 하는데, 나는 이공이 권공보다 낫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연려실기술(燃黍室記述) 권10, “석담일기(石潭日記)』라고 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 충재 선생은 문정왕후의 오라비 원원형에게 대해서도 편지를 보내 꾸짖기를 “옛 시대의 말솜에 내가 서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소. 지금 국가에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어찌 들어 누워 있기간 합니까. 원컨대 공은 병을 이기고 일어나서 조정 대신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위태로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예로부터 ‘국가가 파멸하게 되면 집안도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소.”라고 질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靖簡公이 編纂한 ‘薰陶坊鑄字洞志’

정간공

편찬

훈도방주자동지

권정택 (기호회장)



富有해도 義를 잃지 않고 가난해도 道를 즐겨 서로 친해 하고 서로 사랑하기가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 비록 만석의 부자나 단표(檀樾)의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물며孝는 百行的 原流이고 忠은 三綱의 근본인 바 권상(남강공)이 부모를 섬긴 효성은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고 김절도공이 진주성을 수호한 충은 세상이 함께 찬미하고 있으니 이는 다른 동에서는 반드시 다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우리 마을에서만 두 가지를 다 얻어 겸하게 되었으니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기묘명현은 종남수 이하 8인이 나 되고 을사의 직신은 정사인 등 3인에 이른다.

대저 선인은 천지의 기강으로 한 나라에 여러 사람만 있어도 오히려 다행한 법인데 하물며 한 마을에 있어서라. 한 고을에 여러 사람만 있어도 오히려 다행한 법인데 하물며 한 방에 있어서라.

반걸을 지척의 땅에 충신·효자와 명현이 어찌 이렇게도 많이 배출되었는가?

이는 한 동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잠차 사방에 전승되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 봉황은 천 길의 비랑을 날아도 반드시 그 짝이 있고 학은 구고에서 울어도 스스로 능히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동류로서 이를 취하는 상법인 것이다.

저 초현과 수레가 가득하여 문정(門庭)이 저자를 이룬 자가 머리를 돌릴 때면 연기가 가라앉고 안개가 사라지며 후 무리 지어 참소한 것이 기이하게 들어맞아 일세에 해를 끼친 자의 집에는 사람들이 수레를 돌이켜 들어가지도 않을진대 하물며 그들과 더불어 동거함에 있어서라.

명현을 칭할 때는 반드시 기묘명현을 말하고 사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을사사류를 얘기하는데 청명하고 직절하여 우주의 기둥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어 국사에 기록됨이 어찌 우리 성조에서

200년 동안 선비를 배양한 은택이 아니겠는가?

또한 어찌 땅의 신령함이 갑발한 바가 있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권동지는 덕망 있는 원로 인사로 일을 사랑하고 한가로이 살면서 동지를 편차하여 완성하였으니 어찌 아무런 노력 없이 헛되이 그렇게 되었겠는가?

아! 남쪽 가을에 바람이 파스하게 불어오니 나무에서 잡화가 피어나고, 산머리에 서리가 내리니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숲잔을 기울이고 종일토록 시를 읊조리며 이웃 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한다면 비록 기묘명현이나 을사사류의 융성함에는 미치지 못해도 서로 더불어 왕래하며 함께 충효에 힘쓴다면 후인들이 지금을 보기를 지금 우리가 옛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서유역사박물관 발행 소장유물자료집 참조>

## 權僖의鑄字洞志

주자동지는 조선조 한성부 훈도방에 위치한 주자동의 동지이다.

책의 간행은 1621년에 주자동에 살던 권희와 권반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조선조 주자동은 현재 서울시 중구 주자동 일대이며 이곳은 조선조에 활자를 인쇄하던 교서관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자동이라고 명명되었다.

동지는 맨 앞에 박승종이 쓴 서문이 나고 본문은 공판, 고적, 풍속, 효자, 절부, 명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병조참의 김치의 발문이 실려 있고 그 다음 행에는 ‘전계원년계추’라는 간기가 있는데 이 간기는 본도서가 1621년 간행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맨 뒤 김치의 발문에는 동지의 간행 과정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전계신유년(1621년)에 동지 권희와 집관 권반 두 사람이 박승종에게 요청함으로써 간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권희 등의 의견에 따르면 이 동은 편소 하나 효자, 충신, 열녀, 명현들이 이어지는 등 그 사적이 가히 불만한데 동중의 옛 자취가 오래 지나게 되면 전하지 않을 까 두려워니 동지를 만들어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박승종이 즉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후 권희가 여지지의 편지를 모방하여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 주자소는 개성에 신설되었다가 서울로 이전

주자소의 변천에 대해서는 1958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항토서술’ 제3호에 발표된 김원룡 교수의 논문에서 자세히 실려 있다.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03년(태종3년) 2월13일이었다. 그런데 주자소 설치의 착상이 대체로 고려 최후의 해인 1392년(공양왕 4년)에 생긴 서적원을 본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문제의 서적원은 왕조 교체에 변통기에 즈음해 주자 사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태종은 새로이 주자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름도 주자동이라고 고쳐서 주자 및 인쇄사업을 전담하게 한 모양이다. (다음호에 계속)

# 有懷堂 權以鎭의 對外認識

■ 김문식 (단국대 교수)

(지나호에 이어서)

## 3. 일본에 대한 인식

권이진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적개심을 가졌고, 전쟁이 끝날 무렵 대마도를 정벌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했음을 아쉬워하였다. 다음은 그가 1709년(숙종 35) 5월에 태종대에 감히 기우제를 지내고 지은 시다.

태종대는 절영도의 동쪽 모퉁이에 있다. 동쪽으로 대마도를 바라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임진왜란을 생각하면 슬픈 감회가 일어난다. 저 섬은 명소조선의 은혜를 두텁게 받았는데, 풍신수길(豊秀吉)이 세력을 떨치자 조선의 허실을 모두 고해치고 갈잡이가 되었으니, 당시의 죄로는 대마도주인 종의지(宗義智)가 으뜸이다. 소서행장(小西行長)이 돌아가서 강화를 맺기 전에 명나라 군대가 아직 부산에 머물고 있었다. 이 때 만일조선의 편장(偏將)을 한 명이라도 파견하여 명나라 군대와 힘을 합쳤다면, 새벽에 출발한 군대가 정오에 도착하여 섬의 오랑캐를 모두 죽여 하늘에 닿은 분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듣건대 대마도에서 일본까지는 큰 바다를 넘어 천리라 하니, 비록 탁천가강(德川家康)이 즉시 구원병을 보냈어도 반드시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의 변장(變將)이 겁이 많고 지모가 없었음이 한스럽다.

권이진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동래부사로 부임한 직후 일어난 왜인의 간통과 왜관의 불법무역을 통해 심화되었다. 당시 왜관의 왜인들은 활동지역이 엄격히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훈도나 비발(勿差)의 집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초랑 민가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부녀자와 간통한 사건이 일어났다. 권이진은 왜관에 상

주하는300-400명의 왜인이 밤낮으로 초랑을 들락거리고, 조선어를 아는 왜인이 많은 상황에서 조선의 내부 문제가 정탐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또한 왜관 무역은 원래 한 달에 여섯 번만 미국을 교역했지만, 실제로는 왜관 문밖에 있던 조선(朝市)에서 매일 교역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조시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인삼 가격은 왜인의 수중에서 좌우되고, 대마도주는 조선인 훈도에게 매년 은 천냥 씩을 지급하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

권이진은 국제(國體)를 높이고 국위(國威)를 떨치는데 초점을 두고, 일본과의 교섭은 정해진 문서와 규정을 엄격히 따르도록 했다. 그는 조선 부녀자와 간통한 왜인이 대마도를 달아난 사건에 대해 공식 문서가 아닌 사서(私書)를 접수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므로 접수를 거부했다. 또한 왜인들이 예조에서 대마도주에게 발급하는 입국허가증인 도서(圖書)를 요청하자 간통한 왜인을 데려와 처벌받게 하고, 다시 도서를 요청하는 서계(書契)를 공식적으로 접수시킨 이후에야 고려할 문제로 보았다.

권이진은 일본과의 교역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는 왜인과 가까이 지낸 백성을 처벌하고, 왜관과 통하는 훈도 별자 집사 쪽 담에서 바다까지 담장을 쌓았으며, 군관이 주야로 지키면서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 그는 매일 열리던 조시(朝市)는 정해진 날짜에만 교역을 허용하고, 상인의 출입을 일일이 확인하며, 당일에 판매된

상품은 일단 총액을 받은 뒤 관아에서 역관과 상인들을 모아 나눠주도록 했다.

이는 왜인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총렬별사의 사액, 금정산성의 개수·해방 강화책을 제시했다. 먼저 동래에는 임진왜란 때 부사 송상현이 순절한 자리에 총렬사가 세워졌다. 그러나 송상현과 함께 죽은 양산군수 조영규, 동래교수 노계방, 제생 문덕결 등의 총렬을 높이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 권이진은 동래부사로 부임한 직후 송상현이 순절한 자리에 이들을 위한 별사를 세우고 조정에서 사액하고 제관(祭官)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변방을 지키고 적을 제압하려면 백성에게 충군사장(忠君死長)의 의리를 깨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임진년에 의롭게 죽은 사람들을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부산진의 자성에 버려져 있던 명나라 장수 만세덕(萬世德)과 휘하 장사 59인의 이름이 기록된 공덕비를 발견하고 이를 원래 자리에 다시 세웠다. 과거에 국가를 방어진 공적을 드러냄으로써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재 침입을 대비하는 조치였다. 권이진은 금정산성을 개축하고 동래의 부민들을 산성 안으로 이주시켜 일본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일본의 간도(間島)에서 일기(一峽), 대마도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해로는 섬들이 연이어져 있어, 적들이 기습공격을 하면 동래 백성이 산성에 피신도 하기 전에 적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금정산성을 방어에 편리하도록 개축하고, 동래부의 읍치와 인민을 산성 안으로 이전시키자고 건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